

을 가진 부상을 가진 것 아닙니까. 꿩도까지 올려주는 것이 스님네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스님네들이 신도들과 후학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끄는 일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개탄스런 현실입니다.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빚지면서 살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경심회가 스님을 기르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스님을 길러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부하려는 사람 열명만 모여서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스님을 길러내지 않고서는 포교를 아무리 잘 해도 뿌리없는 가지일 뿐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큰 바람에 넘어지고 말지요.

며칠 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강화선 토론회에 들었다 포교원장에게 이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스님 계시는 시암전(待塔殿)에서 바라보는 영축산의 초겨울은 여전히 푸근합니다만, 어느덧,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하고 돌아보는 때가 왔습니다. 후회없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화엄경에 보면 우리 몸을 소우주로 비유하는데, 딱 들어맞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화엄경에 '일모공중합시방(一毛空中含十方)'이라는 말이 있어요. 터럭 가운데에 우주가 있다. 몸도 아니고 터럭 한가닥에 우주가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터럭 한 가닥 잡아당기면, 몸 전체가 '아아' 하고 소리치듯 터럭 하나가 곧 몸입니다.

자기관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살자지도 않습니다. 입이 음식을 먹는데, 입을 위해서 그러니요. 전체 몸을 위해 봉사하는



◇통도사 시암전 앞뜰을 거닐다 은행잎 몇잎을 줍는 호명스님. 추운 겨울날 노란 잎을 바라보면 마음이 포근해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좌하고 고개를 약간 숙인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이게 내 이름입니다 하며 기자에게 내밀었다.)

—인연법을 아는 데서 봉사하는 삶이 나온다는 말씀이군요. 저 사진도 그런 뜻에서 걸어놓으신 것이군요. (스님의 방 한편에는 굶주려 가늘어진 팔다리, 땀을 닦는 듯한 행한 눈, 임신한 것처럼 볼록 나온 두 어린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붙어 있다.)

▲내전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소말리아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터럭 하나도 우리 몸 전체라고 얘기했는데, 소말리아의 굶주린 어린이

—스님의 세수 87세입니다. 공부 모임도 이끄시니 여전히 '현역'입니다만, 노구이십니다. 건강은 어떻게 지켜가시는지요.

▲냉온욕을 자주 합니다. 단식도 참 많이 했어요. 한번 하면 다섯에서 열을 정도 하는데, 지금까지 단식한 것을 날 수로 치면 이백일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전에는 나를 중으로 알고보다는 단식도 자자로 알 정도였어요.

오래 사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건강해야겠지요.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도 착하고 명(命)도 좋으면 평생 부귀를 누리고, 명은 좋는데 마음이 약하면 복이 화근(禍根)으로 바뀐다. 마음은 착한데 명이 나쁘면 화가 바뀌어 복이 되고, 마음과 명이 모두 나쁘면 재앙을 당하고 곤궁하며 단명한다. 마음은 명을 순탄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으니, 인도(人道)를 따르도록 하라. 명은 실로 마음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니, 길흉화복도 결국 인간이 불러들인 것이다. 명만 믿고 마음을 닦지 않으면 음양이 맞지 않고, 마음을 닦으면서 명을 따르면 천지가 서로 돕는다.”

이렇듯 내가 생각하는 건강의 첫째 비결은 마음의 평정입니다. 우리 집이 서울에서 큰 부자는 아니어도 제법 잘 살았어요. 어려서 인력거 타고 유치원 다녔으니까요. 그러나 집안이 갑자기 기울었어요. 장남인 내가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위장병과 폐병을 얻었어요. 병을 고치려 금강산에 들어갔다 출가했는데, 결국 나를 출가시키려고 한 뜻이었나봐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니 마음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를 날 소나기 올 때 온세상이 떠 내려갈 듯 하지만 곧 비가 그치고 언제 그랬냐 하고 햇살이 내리쬐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려움이 지나간다는

—최근 다시 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대량실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나누기보다는 자기 것 찾기에 더욱 매달리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히 지는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라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의 지침만은 아닙니다. 정치사상이며, 경제사상이며, 사회사상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불자들이 더욱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공석보리심론》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올 겨울의 화두로 삼음이 어떨까 합니다. “보살은 한 중생에게도 친구라는 생각을 갖지 않음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자비심을 일으킨다. 비심(悲心)이 작용하는 까닭에 온갖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대비(大悲)의 뛰어난 보살행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과 장수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나와 남이 서로 어울려 잘 사는 것이므로 선한 인연을 맺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세요.

대답=정성운 처장 (swjung@buddhopia.com)

수행하는 까닭은 무엇일 것인가

“나”를 無化시키는 것

“ 마음을 가지세요.

—최근 다시 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대량실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나누기보다는 자기 것 찾기에 더욱 매달리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히 지는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라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의 지침만은 아닙니다. 정치사상이며, 경제사상이며, 사회사상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불자들이 더욱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공석보리심론》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올 겨울의 화두로 삼음이 어떨까 합니다. “보살은 한 중생에게도 친구라는 생각을 갖지 않음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자비심을 일으킨다. 비심(悲心)이 작용하는 까닭에 온갖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대비(大悲)의 뛰어난 보살행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과 장수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나와 남이 서로 어울려 잘 사는 것이므로 선한 인연을 맺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세요.

대답=정성운 처장 (swjung@buddho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스님과 어머니

정리수(淸離水)라는 말이 있다. 옛날 어떤 처자가 남몰래 스님을 사모하다 우연히 스님들이 공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발우를 깨끗이 씻어 행군 물을 마시는걸 보고 그만 정이 푹 떨어 졌다 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면 스님네들은 삼시 공양 때마다 이 정떨어지는 물을 마시는 셈이 되는데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정떨어지는 물이라는 표현보다 정을 끊게 하는 물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 싶다.

옛날 스님들은 정이 농후하면 도량이 마음에 방해가 된다 하여 무척 경계하였다. 아마도 이미 출가하여 출결 정부가 되었으니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하루 세 번 이 정리수를 마심으로 자신을 경계하고 수행에만 전념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태어난년부터 본인에게 주어진 인연을 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살과 뼈를 받아 태어난 몸으로 어찌 부모의 연마지 쉽게 끊을 수 있겠는가? 혹 그것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도심에 방해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일도양단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닐 것이다.

스님들 중에서도 유난히 독한 마음을 가지고 세속의 정을 끊고 정진하는 스님들이 많

마주치면 그냥 합장반배

그리움 눈빛하나로 대신

다. 그러나 그 스님들의 내면에 잠재된 의식은 아무도 알 수 없으리라.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이 있다. 많은 대중들속에서도 유난히 피부가 희고 고왔으며 항상 정갈하고 넉넉한 성품으로 선 후배 스님들을 공경하고 잘 이해할 줄 알며 마음속 창중에 타끌마지 없어 보이는, 늘 푸른 눈동자를 지닌 해맑은 얼굴 모습을 한 스님이다. 원체가 조용하고 말이 없는 스님이라 있는듯 없는 듯 하면서도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아 대중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스님이었다. 오랜 시간을 그 스님과 지낸 후 우연히 알게된 사연 하나.

해인사에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잊혀질 만 하면 보이고, 그렇게 한 며칠 보았다 싶으면 바람이 스친 듯 보이지 않는, 조용하고 부지런하며 단정한 노보살님이 계셨다. 작달만한 체구에 허리가 약간은 굽었지만 의젓함과 품위를 잃는 법 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보살님이었다.

법당에서 기도하는가 싶으면 어느새 후원에서 채공일을 도와주시고 또 어느덧엔가 도량 청소를 하고 계시는, 무척이나 부지런한 노보살이었다. 도량에서 어쩌다 마주치면 길게 패인 주름살 아래로 그저 한량없는 존경의 눈빛으로 합장 반배함으로써 스님들을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노보살이었다.

그 노보살에게 막내아들이 있었다. 그 막내아들이 출가 결심을 밝히자 잘 결심했냐고 격려해 주고 웃으며 보내 주었다고 한다. 그

러나 불현듯 아들이 보고싶어지면 그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사찰의 이곳 저곳을 청소하고 일을 도와주고 기도도 하면서 만발치에서라도 자랑스런 아들의 수행 모습을 지켜보다가 홀연히 떠나곤 했다.

그 보살의 막내아들이 그 스님이었다는 것을 우연히 누군가에게 들어 알게 된 것은 그 스님과 지낸 지 삼사 년이 지났을 때였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세월을 같이 부대끼며 살아왔는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 그것은 두 모자의 성품이 너무도 '울곧게' 닮아 있어 서로의 수행과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마음의 고삐를 조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는 모자의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연히 도량에서라도 마주치면 그냥 합장 반배의 예만 올리고 마음속 절절한 그리움을 눈빛 하나로 대신하고 그냥 지나쳐야 했던 스님과 그 어머니.



길게 패인 세월의 고통을 묵묵히 아들의 수행모습을 지켜보면서 혼자 삭여왔을 인고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뒤에서 지켜보며 뉘히 알려주지 않아도 말도 건네지 않고 힘겨운 수행의 길을 혼자만의 그리움으로 안고서 이겨나갔을 스님. 그 모자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인연의 정(情)이 얼마나 끈끈한 지를 느낄 수 있었다.

출가한 자식의 뒷바라지를 모든 스님들의 공경과 도량청소, 기도로 대신 하고 그 자식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치열한 수행으로써 갚아 나갈 줄 아는 스님. 막내 아들의 수행이 길어지면 질수록 정작 당신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늘어감만, 오히려 그 세월의 고통을 자랑스러워 할 줄 아는 노보살님과 연로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지척에 두고 보면서 자신의 공부에 방해가 될세라 그냥 남몰래 무심하게 지나치면서 그 어머니의 고마움을 가슴에 묻어두고 지내는 스님.

두 모자의 아름다운 수행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길어 가는 계절의 초입에서 노보살의 무명장수와 스님의 수행공부가 일취월장하기를 가만히 빌어본다.

※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마음 평정 중요...현재의 고통 걸림돌이 디딤돌 될수 있지요”

것이요. 입이 먹으니 손톱도 나오고 머리털도 자랍니다. 팔다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어찌 입 따로 있고, 머리 따로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찌 나, 너 라고 할 수 있나요.

불자라면 인연법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누구를 때리면 아프고, 그 사람은 내가 왜 맞나, 언젠가는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인연법을 다 알지만, 인연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인연의 결과가 다가올 지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모든 채로 그대로 놔두는 게 체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알아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게 하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가 내 이름을 몰으면 그림 하나 그려 줍니다. (이내 스님은 종이 위에다 가부

를 그쳐 남이라고 본다거나,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인 인연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 어린이의 배고픔이나의 고통입니다.

어느 스님의 법문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연을 맺는 것은 우리의 사회가 진보하는 사회인가, 야만가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는 말씀을 보았어요.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서 화엄경의 한 구절에서처럼 남이라고 부를만한 게 없어요. 모두 나입니다. 또 나라고 내세울만한 게 없으니 나니, 너니 다칠 일도 아니고요. 이웃의 고통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진보를 논하기 이전에 사람이 사는 제대로 된 사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저 사진을 복사해두고 해포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방에 붙여놓아라' 하면서 줍니다.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발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記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석정 큰스님-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조선일보-

原畫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가로 257×348mm (타블로이드판형)
- 연수: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회기 수록)
- 정정: 전면 컬러·양장제본
- 발행처: 성보문화재연구원
- 가격: 각권 90,000원

韓國의 佛畫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명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아들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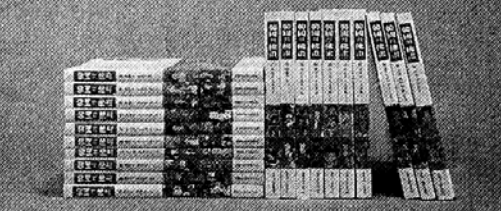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함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 | | |
|------------------|-------------------|
|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
|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 제12권 선암사 편 |
| 제3권 통도사 본말사 편(하) |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
|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 제14권 선운사 본말사 편 |
|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
|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
|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 제17권 범주사 본말사 편 |
| 제8권 적지사 본말사 편(상) |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I) |
| 제9권 적지사 본말사 편(하) |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II) |
| 제10권 원정사 본말사 편 |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

『한국의 불화』 원간 기념 특별가 200원 할인
기간: 2000년 11월 2일~12월 31일
보급가: 1백만원(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